

느타리버섯의 분석기간(2003-2014) 동안 조수입은 6,880천원, 경영비는 3,547천원, 생산비는 3,029천원, 소득은 3,281천원, 순수익은 1,625천원이며 모든 경영지표가 감소세에 있다. 연평균 증감률은 조수입 -3.2%, 경영비 -2.2%, 생산비 -1.4, 소득 3.9%, 순수익 -7.5% 이다.

<표 3-3-56> 느타리버섯 연도별 경영개황

(단위 : 원/10a, %)

구분	조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	순수익
2003	9,237,862	4,060,596	6,225,902	5,227,327	3,011,960
2004	9,374,963	4,115,394	6,788,791	5,301,295	2,586,172
2005	9,390,799	4,618,824	7,137,131	4,797,549	2,253,668
2006	10,875,101	5,541,097	8,009,471	5,334,004	2,865,630
2007	10,581,725	5,168,542	8,049,074	5,243,893	2,532,651
2008	7,054,237	3,678,018	5,492,029	3,405,652	1,562,208
2009	7,756,007	4,101,267	6,138,115	3,699,455	1,617,893
2010	7,406,801	3,773,632	5,751,831	3,711,349	1,654,970
2011	7,731,604	3,966,999	6,088,476	3,884,759	1,643,128
2012	7,638,993	3,949,448	6,322,849	3,757,272	1,316,144
2013	5,876,358	3,193,246	5,030,066	2,726,395	846,292
2014	5,748,928	2,853,163	4,751,737	2,941,229	997,191
평균	6,880,537	3,547,297	5,588,992	3,404,201	1,291,545
연평균증감률	-3.2	-2.2	-1.4	-3.9	-7.5

최근 5개년 동안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의 비중은 전체의 87.5%로 높다. 자가노력비가 전체의 31.0%로 가장 비중이 크고, 느타리버섯의 작물특성으로 인해 영농광열비(14.9%), 배지제조비(11.5%)가 뒤를 이었다.

<표 3-3-57> 최근 5개년 기준 생산비 세부항목의 비중

(단위 : 원/10a)

순위	구분	평균생산비	비중
1위	자가노력비	6,452,370	31.0
2위	영농광열비	3,095,997	14.9
3위	배지제조비	2,389,864	11.5
4위	재료비	1,653,068	7.9
5위	영농시설	1,574,583	7.6
6위	종균비	1,571,894	7.6
7위	고용	1,468,749	7.1
8위	대농구	1,014,357	4.9
9위	고정자본	593,836	2.9
10위	토지자본	296,710	1.4
11위	유동자본	261,577	1.3
12위	수선비	242,711	1.2
13위	토지	70,068	0.3
14위	농기계	59,658	0.3
15위	기타요금	17,485	0.1
16위	시설	14,344	0.1
17위	소농구비	14,086	0.1
18위	농약비	13,530	0.1
19위	수리(水利)비	13,276	0.1
합계		20,818,164	100.0%